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제22권 제4호(2011년 12월)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1;22(4):63-75

정서 관련 척도를 이용한 사상체질의 감정 특성 요인 연구

김우철, 김경수*, 김경옥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The study of Emotion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by Several Mood scale

Woo-Chul Kim, Kyeong-Su Kim*, Kyeong-Ok Kim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Dept. of physical therapeutics,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One's mind is turned over by environ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 This Emotion is called Chiljung in Oriental Medicine. Sasang Constitution is sorted each Emotion by Nature & Emotion(性情). So, this study aimed at figuring out the relations on Sasang Constitution, and emotion traits of oriental medicine students by EEQ and CISS(as named Mood scale).

Methods :
199 students of Dongshin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were tested by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Ⅱ(QSCCⅡ) and Mood scale. In this study is used 156 students' data, except 43 students' one for research. 156 students are classified four groups by QSCCⅡ. The degree of emotion was determined by Mood scale. These data wa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ANOVA, Multiple comparison, Correlation, Regression with SPSS windows 15.0.

Results :
1. Soeumin has high score on EEQ more than Soyangin.
2. Sasang constitution make no difference on CISS, except emotion-oriented coping in not classify group.
3. It has influence on Emotional express by Sasang constotution that Task-oriented coping, EEQ and CISS.

Conclusions :
Sasang constitution has significant difference on Emotional express.

Key Words :
Emotion, Sasang constitution, QSCCⅡ, Mood scale

투고 : 2011. 08. 04. 수정 : 2011. 09. 02. 채택 : 2011. 09. 15.
교신저자 : 김경옥,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22-9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신경정신과
Tel) 061-729-7166, Fax) 061-725-1717, E-mail) avecinok@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2월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의학과 신경정신과학전공 석사학위 논문임

Ⅰ. 서 론

인간은 항상 욕구가 있으며, 그 욕구가 만족될 때에는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며, 욕구가 만족되지 못할 때는 우울과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며 적절히 대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같이 감정의 생성은 어떤 동기나 자극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의 구체적인 반응양상과 강도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는 주관적인 요소이다[1].

한의학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중 가장 빈발되며 구체적인 감정들을 七情이라 칭한다. 七情은 다른 사물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 사람의 情志가 시시각각 활동변화하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건강에는 무해하나 만약 지나치면 정신상 과도한 자극이 되어 질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볼 수 있다[2].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통해, 사상인의 네 가지 기본 性情이 고유한 상승 혹은 하강 운동을 통해 인체 장부의 기능과 구조를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3]. 이 네 가지 性情은 사람마다의 심리발현에 있어서 편차가 존재한다. 대인적 특성에 따른 우월기능으로 직관이 강한 태양인은 哀性이, 감정이 강한 소양인은 怒性이, 감각이 강한 태음인은 喜性이, 사고가 강한 소음인은 樂性이 더 잘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4]. 따라서 사상인이 표출하는 각각의 심리발현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발현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상체질과 정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 등[5]은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융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해 연구하였고, 고[6]는 사상체질별 성격요인 분석에 관해 연구하였다. 또한 정 등[7]은 기본 감정으로서의 칠정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사상체질과의 연관성 부분은 부족하였다.

이에 저자는 체질판별이 가능한 한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QSCCⅡ를 통해 분류된 사상체질과 정서표현성척도, 스트레스 대처척도를 비교하여 사상체질별 감정의 발현양상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연구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사상체질별 감정 발현양상의 차이 연구를 위하여 사상체질과 정서표현성척도, 스트레스 대처척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로 구성되었다.

2. 측정도구

1) QSCCII(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사상체질분류검사(QSCCⅡ)는 객관적인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PC용 Program으로 체질진단의 높은 정확률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표준화 작업을 거쳐 객관화된 진단지표를 제공하는 검사이다. 총 121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객관식 15문항이고 나머지는 주관식이며, 신체적 요소 8문항과 심성적 요소 80문항, 체질병증과 체질소증에 관한 24문항, 동기왜곡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8].

2) 정서표현성 질문지(EEQ :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정서표현성은 정서를 밖으로 표현하는 정도와

관련된 특성으로, 얼굴 표정을 포함한 모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으로부터 파악되는 정서적 반응의 표현적이고, 억제되지 않고, 개방적인 정도를 의미한다[9].

정서의 경험과 표현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고 대처하게 되는 상황과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을 한다. 즉, 정서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정서의 신호 기능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와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대방은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된다[10].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King과 Emmons가[11] 개발하고, 하정[12]이 번역한 정서표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실제 표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정서표현 4문항, 부정적 정서표현 5문항, 친밀한 정서표현 7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묶여져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정서 표현성 척도가 .623, 긍정적 표현 척도 .328, 부정적 표현 척도 .665, 친밀한 정서 척도는 .393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대처척도(CISS : The Coping For Stressful Situation)

Lazarus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반응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문제 중심적 대처는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이고, 정서 중심적 대처는 정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로 회피, 선택적 주의, 인지적 재평가 등이 포함된다[13].

본 연구에서는 정서 경험에 따른 정서 조절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Endler와 Parker[14]가 개발한 The Coping For Stressful Situation를 바탕으로 조한익[15]이 국내 예비연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스트레스 대처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 중심 대처, 자기위로능력, 회피적 대응, 이렇게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높은 점수를 선택할수록 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스트레스 대처척도가 .861, 문제 중심적 대처 척도 .836, 사회적 지지 척도 .764, 정서 중심적 대처 척도 .842, 자기 위로 척도 .863, 회피적 대응 척도가 .561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과 절차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199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164명 중 설문답안이 불성실한 8명을 제외한 156명(남자 111명, 여자 45명)명을 대상으로 QSCCⅡ와 정서관련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QSCCⅡ를 통해 감별된 체질별로 소양인 45명, 소음인 50명, 태음인 28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룹(Not Classify, 이하 미분류) 33명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네 그룹과 각 체질간 설문지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감정의 발현 특성을 알아보았다.

4. 통계분석

QSCCⅡ와 정서관련 설문지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는 SPSS Windows 1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척도에서 체질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체질간 정서 표현성 척도와 스트레스 대처척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으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넷째, 체질간 정서 표현성 척도와 스트레스 대처척도의 상관관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정서 표현성 척도와 스트레스 대처척도가 사상체질의 감정 발현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적사항

전체 156명의 그룹에 따른 성별과 나이는 Table Ⅰ과 같다.

QSCCⅡ를 통해 감별된 체질 중 소양인 45명, 소음인 50명, 태음인 28명 그리고 체질 감별이 명확하지 않은 그룹(이하 미분류)는 33명이었다.

Table Ⅰ.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Group			Soyangin		Soeumin		Tae-eumin		Not Classify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General Characteristics	Sex	Male	25	55.56	38	76	23	82.14	28	84.85
		Female	20	44.44	12	24	5	17.86	5	15.15
	Age	20s	35	77.78	38	76	21	75	23	69.70
		30s	8	17.78	9	18	6	21.43	7	21.21
		40s	2	4.44	3	6	1	3.57	3	9.09
	Total		45	100	50	100	28	100	33	100

2. 정서표현성척도

정서표현성 척도는(전체 그룹 삭제)소양인 46.78±4.80 소음인 48.34±3.88 태음인 48.07±4.14 및 미분류 49.03±4.5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비슷한 양상으로 정서가 표현되고 있으며, 하부 척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으나 소양인에서 부정적 표현의 척도가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P<0.05$)(Table Ⅱ).

각 체질간의 정서표현성척도와 그 하부 척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ANOVA와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 표현 척도에 $P<0.05$에서 집단간의 분포에 차이가 있고(Table Ⅲ), 다중비교에서 소양인에 비해 소음인이 부정적 정서표현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Table Ⅳ).

Table Ⅱ. t-test of EEQ between total group and 4 type constitution

	Soyangin		Soeumin		Tae-eumin		not classify	
EEQ	46.78±4.80	.113	48.34±3.88	.612	48.07±4.14	.925	49.03±4.59	.221
E1	15.18±2.35	.966	15.08±2.53	.844	15.61±2.01	.371	14.88±3.01	.571
E2	10.09±2.64	.017*	12.00±2.79	.152	11.64±2.93	.584	11.61±3.66	.616
E3	20.93±3.77	.630	21.04±2.47	.703	20.93±3.16	.673	22.06±3.36	.168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E1 : positive expression
E2 : negative expression
E3 : intimate emotion

Table III. ANOVA of EEQ on 4 type constitu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EEQ	Between Groups	108.15	3	36.05	1.90	.132
	Within Groups	2887.83	152	19.00		
	Total	2995.98	155			
E1	Between Groups	8.54	3	2.85	.45	.715
	Within Groups	954.45	152	6.28		
	Total	962.99	155			
E2	Between Groups	96.89	3	32.30	3.64	.014*
	Within Groups	1347.95	152	8.87		
	Total	1444.84	155			
E3	Between Groups	30.98	3	10.33	1.01	.390
	Within Groups	1554.46	152	10.23		
	Total	1585.44	155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E1 : positive expression
E2 : negative expression
E3 : intimate emotion

Table IV. Multiple comparison of EEQ on 4 type constitution

Dependent Variable	(I)4 Type Constitution	(J)4 Type Constitution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
EEQ	Soyangin	Soeumin	-1.56	.90	.388
		Tae-eumin	-1.29	1.05	.678
		not classify	-2.25	1.00	.171
	Soeumin	Tae-eumin	.27	1.03	.995
		not classify	-.69	.98	.919
	Tae-eumin	not classify	-.96	1.12	.865
E1	Soyangin	Soeumin	.10	.52	.998
		Tae-eumin	-.43	.60	.917
		not classify	.30	.57	.965
	Soeumin	Tae-eumin	-.53	.59	.851
		not classify	.20	.56	.988
	Tae-eumin	not classify	.73	.64	.734
E2	Soyangin	Soeumin	-1.91*	.61	.023
		Tae-eumin	-1.55	.72	.200
		not classify	-1.52	.68	.181
	Soeumin	Tae-eumin	.36	.70	.968
		not classify	.39	.67	.951
	Tae-eumin	not classify	.04	.77	1.000
E3	Soyangin	Soeumin	-.11	.66	.999
		Tae-eumin	.01	.77	1.000
		not classify	-1.13	.73	.502
	Soeumin	Tae-eumin	.11	.76	.999
		not classify	-1.02	.72	.569
	Tae-eumin	not classify	-1.13	.82	.595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E1 : positive expression
E2 : negative expression
E3 : intimate emotion

3. 스트레스 대처척도

스트레스 대처 척도는(전체 그룹 삭제) 소양인 199.11±21.50 소음인 197.92±16.35 태음인 196.07±18.81 그리고 미분류 192.64±24.89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하부 척도에서는 정서 중심적 대처에서 미분류가 P<0.05에서 유의성을 보였다(Table Ⅴ).

각 체질간 스트레스 대처 척도와 그 하부 척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ANOVA와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문제 중심적 대처는 P<0.05에서, 정서 중심적 대처는 P<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Table Ⅵ), 다중비교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 중심적 대처에서 소음인이 미분류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Ⅶ).

Table Ⅴ. t-test of CISS between total group and 4 type constitution

	Soyangin		Soeumin		Tae-eumin		not classify	
CISS	199.11±21.50	.510	197.92±16.35	.726	196.07±18.81	.857	192.64±24.89	.304
C1	47.18±6.87	.155	48.10±6.47	.508	50.11±7.14	.365	51.09±6.50	.083
C2	49.44±7.31	.161	47.36±7.41	.820	46.21±6.56	.355	46.82±9.08	.588
C3	32.87±5.96	.373	33.64±5.68	.095	30.29±6.87	.245	29.24±7.78	.046*
C4	37.22±5.47	.526	38.00±5.59	.884	38.75±6.52	.479	37.76±7.16	.933
C5	29.07±5.81	.149	27.38±4.29	.680	28.11±5.78	.732	26.09±5.62	.117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C1 : task-oriented coping
C2 : social diversion
C3 : emotion-oriented coping
C4 : distraction
C5 : avoidance-oriented coping

Table Ⅵ. ANOVA of CISS on 4 type constitu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CISS	Between Groups	889.99	3	296.66	.72	.543
	Within Groups	62811.62	152	413.23		
	Total	63701.61	155			
C1	Between Groups	363.84	3	121.28	2.69	.048*
	Within Groups	6852.48	152	45.08		
	Total	7216.32	155			
C2	Between Groups	229.64	3	76.55	1.32	.271
	Within Groups	8838.25	152	58.15		
	Total	9067.89	155			
C3	Between Groups	499.43	3	166.48	3.98	.009**
	Within Groups	6356.50	152	41.82		
	Total	6855.93	155			
C4	Between Groups	41.81	3	13.94	.38	.770
	Within Groups	5633.09	152	37.06		
	Total	5674.90	155			
C5	Between Groups	179.16	3	59.72	2.11	.101
	Within Groups	4293.99	152	28.25		
	Total	4473.15	155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C1 : task-oriented coping
C2 : social diversion
C3 : emotion-oriented coping
C4 : distraction
C5 : avoidance-oriented coping

Table Ⅶ. Multiple comparsion of CISS on 4 type constitution

Dependent Variable	(I)4 Type Constitution	(J)4 Type Constitution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
CISS	Soyangin	Soeumin	1.19	4.18	.994
		Tae-eumin	3.04	4.89	.943
		not classify	6.48	4.66	.588
	Soeumin	Tae-eumin	1.85	4.80	.985
		not classify	5.28	4.56	.719
	Tae-eumin	not classify	3.44	5.22	.933
C1	Soyangin	Soeumin	-.92	1.38	.930
		Tae-eumin	-2.93	1.62	.353
		not classify	-3.91	1.54	.096
	Soeumin	Tae-eumin	-2.01	1.59	.659
		not classify	-2.99	1.51	.272
	Tae-eumin	not classify	-.98	1.73	.955
C2	Soyangin	Soeumin	2.08	1.57	.623
		Tae-eumin	3.23	1.84	.380
		not classify	2.63	1.75	.522
	Soeumin	Tae-eumin	1.15	1.80	.939
		not classify	.54	1.71	.992
	Tae-eumin	not classify	-.60	1.96	.992
C3	Soyangin	Soeumin	-.77	1.33	.952
		Tae-eumin	2.58	1.56	.435
		not classify	3.62	1.48	.117
	Soeumin	Tae-eumin	3.35	1.53	.189
		not classify	4.40*	1.45	.030*
	Tae-eumin	not classify	1.04	1.66	.941
C4	Soyangin	Soeumin	-.78	1.25	.943
		Tae-eumin	-1.53	1.47	.780
		not classify	-.54	1.40	.986
	Soeumin	Tae-eumin	-.75	1.44	.965
		not classify	.24	1.37	.999
	Tae-eumin	not classify	.99	1.56	.940
C5	Soyangin	Soeumin	1.69	1.09	.498
		Tae-eumin	.96	1.28	.905
		not classify	2.98	1.22	.118
	Soeumin	Tae-eumin	-.73	1.26	.953
		not classify	1.29	1.19	.761
	Tae-eumin	not classify	2.02	1.37	.538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C1 : task-oriented coping
C2 : social diversion
C3 : emotion-oriented coping
C4 : distraction
C5 : avoidance-oriented coping

4. 체질과 정서관련 요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1) 정서표현성척도

(1) 소양인

정서표현성 척도는 친밀한 정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부정적 표현과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 부정적 표현척도는 스트레스 대처 척도, 사회적지지척도와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친밀한 정서 척도는 스트레스척도, 자기위로척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Table Ⅷ).

(2) 소음인

정서표현성 척도는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과 친밀한 정서에 대해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Table Ⅷ).

(3) 태음인

정서표현성 척도는 친밀한 정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긍정적 표현과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 친밀한 정서 척도는 문제중심적, 자기위로척도와 상관관계가 있다(Table Ⅷ).

(4) 미분류

정서표현성 척도는 긍정적 표현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부정적 표현 척도는 친밀한 정서, 자기위로척도와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Table Ⅷ).

2) 스트레스 대처척도

(1) 소양인

스트레스대처척도는 사회적지지척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위로, 회피적 대응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부정적 표현과는 부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다. 문제중심적 척도는 자기위로척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적지지척도와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회피적 대응 척도와는 정적으로, 부정적 표현 척도와는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정서중심적 척도는 사회적지지 척도와 정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자기위로척도는 회피적 대응척도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회피적 대응척도는 친밀한 정서와는 정적으로, 부정적 표현과는 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다(Table Ⅷ).

(2) 소음인

스트레스대처척도는 문제중심적, 자기위로척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회피적 대응척도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문제중심적 척도와 사회적 지지척도, 자기위로척도는 부정적 표현척도와 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 정서중심적 척도는 부정적 표현척도와는 정적으로, 자기위로척도와는 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다(Table Ⅷ).

(3) 태음인

스트레스 대처척도는 사회적 지지척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문제중심적 척도는 자기위로척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정서중심적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척도와는 정적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 회피적 대응척도는 긍정적 표현척도와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Table Ⅷ).

(4) 미분류

스트레스 대처척도는 사회적지지, 회피적 대응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문제중심적 척도는 자기위로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정서중심적 척도는 회피적 대응척도와는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자기위로척도는 사회적 지지척도, 친밀한 정서척도와는 정적으로, 부정적 표현척도와는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Table Ⅷ).

Table Ⅷ. Correlations

		EEQ	E1	E2	E3	CISS	C1	C2	C3	C4	C5
EEQ	total	1									
	soyangin	1									
	soeumin	1									
	tae-eumin	1									
	not classify	1									
E1	total	.528**	1								
	soyangin	.571**	1								
	soeumin	.415**	1								
	tae-eumin	.477*	1								
	not classify	.720**	1								
E2	total	.378**	-.197*	1							
	soyangin	.349*	-.090	1							
	soeumin	.451**	-.229	1							
	tae-eumin	.301	-.396*	1							
	not classify	.304	-.181	1							
E3	total	.528**	.180	-.265**	1						
	soyangin	.614**	.179	-.159	1						
	soeumin	.431**	.035	-.229	1						
	tae-eumin	.709**	.363	-.302	1						
	not classify	.342	.279	-.494**	1						
CISS	total	.046	.176*	-.309**	.283**	1					
	soyangin	.115	.185	-.498**	.521**	1					
	soeumin	.041	.261	-.228	.107	1					
	tae-eumin	.271	.294	-.213	.360	1					
	not classify	-.089	.047	-.262	.131	1					
C1	total	.046	.115	-.229**	.278**	.525**	1				
	soyangin	.088	.200	-.177	.260	.582**	1				
	soeumin	-.115	.128	-.289*	.116	.739**	1				
	tae-eumin	.120	.212	-.359	.409*	.529**	1				
	not classify	-.029	-.031	-.314	.318	.441*	1				
C2	total	-.058	.111	-.312**	.139	.733**	.181	1			
	soyangin	-.052	.140	-.629**	.326*	.878**	.373*	1			
	soeumin	-.190	.115	-.315*	-.051	.506**	.214	1			
	tae-eumin	.249	.291	-.082	.158	.733**	.011	1			
	not classify	-.004	.023	-.097	.125	.800**	.192	1			
C3	total	.111	.079	.098	-.021	.384**	-.241**	.276**	1		
	soyangin	.122	.068	-.246	.258	.445**	-.190	.379*	1		
	soeumin	.237	.023	.399**	-.130	.141	-.161	-.009	1		
	tae-eumin	.032	-.080	.130	-.030	.402*	-.233	.297	1		
	not classify	.164	.235	.147	-.153	.465**	-.222	.407*	1		
C4	total	.020	.039	-.301**	.400**	.593**	.615**	.323**	-.250**	1	
	soyangin	.165	.123	-.248	.541**	.727**	.660**	.483**	-.037	1	
	soeumin	-.088	.085	-.318*	.200	.669**	.564**	.210	-.393**	1	
	tae-eumin	.258	.258	-.202	.411*	.576**	.680**	.250	-.338	1	
	not classify	-.226	-.202	-.482**	.453**	.468**	.621**	.404*	-.247	1	
C5	total	.072	.186*	-.221**	.148	.574**	-.010	.474**	.300**	.175*	1
	soyangin	.086	.017	-.327*	.397**	.707**	.033	.668**	.423**	.340*	1
	soeumin	.232	.253	-.089	.112	.347*	.018	.119	-.007	.244	1
	tae-eumin	.257	.375*	-.124	.134	.483**	.003	.539**	.267	-.018	1
	not classify	-.078	.188	-.205	-.081	.638**	.047	.548**	.417*	.127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2-tailed)

5. 사상체질의 감정발현 양상에 대한 회귀분석

사상체질의 감정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은 Table Ⅹ과 같다.

10개의 독립변수로 사상체질의 감정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친밀한 정서표현, 사회적지지, 자기위로, 회피적 대응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정서중심적대처, 정서표현성척도, 문제중심적대처, 스트레스대처척도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6.763, P=.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P<0.05에서 체질에 따른 감정발현에 대한 영향요소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감정발현에 대한 총변화량의 1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Table Ⅸ. ANOVA of Regression model(n=156)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Linear regression analysis	28.807	4	7.202	6.763	.000
Residual	160.802	151	1.065		
Total	189.609	155			

R^2(adj. R^2) = .15

또한,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감정발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정서표현성척도(t=2.245, p=.026), 문제중심적대처(t=3.275, p=.001), 스트레스대처척도(t=-2.545, p=.012)이다(Table Ⅹ). 정서중심적대처는 스트레스대처척도가 없는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Table Ⅹ. Multiple regression of Emotional express on 4 type constitution. (n=156)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β)	t	p-value
	β	Standard error			
C3	-.009	0.17	-.056	-.561	.567
EEQ	.043	.019	.170	2.245	.026
C1	.057	.017	.351	3.275	.001
CISS	-.016	.006	-.286	-2.545	.012
Constant	1.847	1.207		1.530	.128

Ⅳ. 고 찰

심리학에서 정서는 본래 흥분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감정이 외계의 자극이나 내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쾌·불쾌의 미분화된 흥분 상태라면, 정서는 분노, 공포, 환희와 같이 보다 더 세분화된 상태로서 정서적으로 자극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체적 변화와 동기화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다[16].

한의학에서의 七情은 인간 고유의 본성이 내외의 심리적 자극에 감응하여 평상적인 항심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기본적인 발출 이전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심리적 동요는 자극의 강도와 지속 시간 또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 및 환경적 요소에 따라 표정·언어의 발출 행위를 거쳐 외부 사물에 대한 반응 양상을 띄게 되며 이것이 병리적인 경과를 거쳐 臟腑氣血의 정상 기능에서 일탈되어 생리리듬에 역작용을 나타낼 때 비로소 병인으로 작용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의 七情論의 기본 개념과 스트레스의 인체 반응 개념 모식은 상당 부분 흡사하다[17].

사상체질의학은 동무 이제마가 체질 유형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고 각 체질에 따른 생리와 병리, 치료, 양생을 연구하

여 만들어 낸 독창적인 체질의학이다[18]. 사상의학에서는 각 체질별로 정서적인 불균형이 신체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정서적 불균형을 각 체질별로 急迫之心, 不安定之心, 怯心. 恐心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恒心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 체질별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19].

太少陰陽 각각의 性情을 살펴보면 太陽의 性氣는 항상 나아가려 하고 물러서려 하지 않으며, 少陽의 性氣는 항상 들려고 하며 놓으려 하지 않으며, 太陰의 性氣는 항상 고요하려 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少陰의 性氣는 항상 집에만 있으려 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太陽의 情氣는 항상 수컷이 되고자 하고 암컷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 少陰의 情氣는 항상 암컷이 되고자 하고 수컷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 少陽의 情氣는 항상 밖으로 이기고자 하고 안으로 지키고자 하지 않으며, 太陰의 情氣는 항상 안으로 지키고자 하고 밖으로 이기고자 하지 않는다[19].

性氣와 情氣는 내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품성이며 본성이지만, 이러한 性情의 바탕 때문에 四象人에 있어 외적으로 관찰되는 性質 材幹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즉 太陽人의 性質은 소통하는 데 장점이 있고 材幹은 교제하는 일에 능하며, 太陰人의 性質은 일을 성취시키는데 장점이 있고, 材幹은 거처에 능하고, 少陽人의 性質은 굳세고 용감한 장점이 있고 材幹은 사무처리에 능하며, 少陰人의 性質은 단정하고 진중한데 장점이 있으며 材幹은 黨與에 능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19].

이에 대해 김[4]은 "태양인의 직관인 仁은 시간적인 것으로 지나간 것보다 앞으로 다가올 것을 중시하여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씀이 지나치면 체념하여 슬퍼하게 되고, 소양인의 감정인 義는 공간적인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서두르는 마음으로 이 마음씀이 지나치면 화가 나게 되는 것이며, 소음인의 사고인 智는 공간적인 것으로 다른 이들 생각보다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여 이치를 밝히려는 성향으로 관심이 있는 대상에 주위를 무시한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즐기는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고, 태음인의 감각인 禮는 시간적인 것으로 지나간 것을 잘 기억하여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은 익숙해 질 때까지 지켜보려는 성향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받아들임에 자기를 보호하려 웃음을 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사상체질이 性情의 바탕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에 차이가 보이는 점은 정서표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정서 표현성 척도와 스트레스 대처 척도를 이용한 사상체질의 감정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낸다.

소양인은 정서 표현성 척도에서는 부정적 표현 척도가 다른 체질, 특히 소음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관관계에서는 부정적 표현척도가 스트레스 대처척도와 그 하위 사회적 지지척도와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스트레스 대처척도는 자기위로척도가 정서 표현성 척도와 많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문제중심적 척도와 사회적 지지척도는 자기위로척도와 높은 관계를 보이는 체질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김[4]은 소양인의 감정 특성인 怒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정의를 지향하려는 것을 서두르고, 들려하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서두름은 실제 정서표현 행동에 있어 부정적인 정서표현과 연관되며, 공감하는 정의를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에 의한 대처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소음인은 스트레스 대처척도 중 정서중심적

척도가 다른 체질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이성을 보인다. 문제중심적 척도와 자기위로척도가 많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질적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 김[4]은 소음인의 감정 특성인 樂이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이치를 밝히며, 관심 있는 대상에 주위를 무시한 집중이 필요하고 즐기는 것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이런 대상에 대한 집중과 즐기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 중심적 대처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된다.

태음인은 정서관련척도에서는 다른 체질과 구별되는 특이점이 없었다. 상관관계에서는 소양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소양인과는 부정적 표현척도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친밀한 정서척도가 스트레스 대처 및 하위척도와 별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척도는 자기위로척도, 회피적 대응척도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김[4]은 태음인의 감정 특성인 喜가 익숙하지 못한 일을 받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지나간 것을 잘 기억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이런 특성은 부정적 정서표현이 적으며 친밀한 정서표현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익숙하지 못한 일을 받는 것은 스트레스로 자기위로에 의한 대처를 낮게 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분류는 스트레스척도와 그 하위 척도인 정서중심적 척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관관계에서는 부정적 표현척도가 높은 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어 다른 체질과 구분된다. 미분류는 喜怒哀樂의 특이성이 드러나지 않는 집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알아내고 정서들간의 구별 및 활용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보이는 체질적인 특징이 섞여 있어 체질 감별이 되지 않았다 생각된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체질에 따른 정서표현에 대한 차이와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이 차이는 감정발현 양상과 관련이 있으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문제중심적대처, 정서표현성척도, 스트레스대처척도 순으로 감정 발현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Table X). 다만, 정서중심적대처는 스트레스대처척도를 배제하였을 때 $p<0.05$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점에서 스트레스대처척도와 배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연구해볼 문제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정서 관련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상체질의 감정 특성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총156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상체질과 정서표현성, 스트레스 대처 척도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정서표현성은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외 나머지는 체질에 대한 특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스트레스 대처척도는 체질에 따른 특이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분류에서 정서중심적인 부분이 낮게 나타났다.
3. 체질에 따른 감정발현에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표현성척도, 스트레스대처척도 순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미비하다.

사상체질에 따라 감정의 발현 과정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체질에 따른 두드러진 정서 특이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감정 발현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 부재가 한계점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안윤숙, 이영호. 정서 경험의 개인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2-10.
2. 황의완. 심신증. 서울:행림출판. 1985:33-7.
3. 송일병, 이문재. 사상의학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95;16(1):42-5.
4. 김도순. 동의심학 원리론.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7;8(1):6-28.
5. 박희관, 이종화.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융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41-50.
6. 고병희. 사상체질별 성격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93;14(2):64-76.
7. 정종효, 최금애, 김경수, 김경옥. 내재된 기본감정으로서의 칠정에 관한 초보적 연구.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2009;20(1):107-18.
8. 김태연, 유정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28.
9. Riggio, R.E., & Friedman, H.S. The interrelationships of self-monitoring factors, personality traits, and nonverbal social skill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982;7:33-45.
10. Fridlund, A. J. The new ethology of human facial expressions. In J. A. Russell & J. Fernandez-Dols(Eds.), The psychology of facial expression.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103-29.
11. King, L. A. & Emmons. R. A.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0;58:864-77.
12. 하정.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20-32.
13. Folkman, S., & Lazarus, R. S.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0;21:219-39.
14. Endler, N. S., & Parker, J. D. A. Coping Inventory for Stressful Situation(CISS). Manual, Toronto. Multi-Health System Inc. 1990:1-72.
15. 조한익.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한 비합리적 신념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논총. 2000;16:129-51.
16. 임창재. 정신위생심리. 서울:형설출판사. 1997:65.
17. 안상우. 스트레스의 개념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7;3(1):119-51.
18. 박성식, 박은경, 최재영.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 1999;11(1):103-17.
1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집문당. 2004:33-176.